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5(금) ~ 2022.8.11(목)

제공일시 2022 08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8.5(금) ~ 2022.8.11(목)

제공일시 2022 08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미 기후대응에 480조 투자 신재생시대 열린다

- 미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고 하원통과가 무난하여 기후대응 및 공급망 구축에 10년간 480조원 자금이 투입됨
- 삼성증권 자료를 보면, 기후에너지 계획 주요 내용이 정리돼있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기술관련 투자의 세금공제인 ITC공제 30%를 2032년까지 연장함 특히 미국내 생산제품에 세제혜택을 줌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풍력생산세액공제(OTC)가 2050년까지 연장되면서, 씨에스윈드와 동국S&C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 이외에도 LG엔솔과 SK온,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등도 미국진출 예고 혹은 확정지어 수혜가 기대되지만, 현대차는 조지아주 공장이 2025년 완공이라 당장 보조금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

(머니투데이, 2022.08.09) 최민경 기자

### 2. '귀하신 몸' 된 재생 플라스틱... "재생 원료 안 쓰면 수출 못 해" 비명

- EU에서는 페트병을 만들 때 2025년부터 25% 이상, 2030년부터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써야함
- 벨기에 일부 지자체에선 2025년부터 비닐봉지에 대해 100% 재생원료를 만들도록 했고, 영국은 수입 제품을 포함해 재생플라스틱 사용비중이 30% 밑도는 포장에 대해 톤당 200파운드 세금을 부과하고, 미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1월 재생원료 의무사용비율을 최소 15% 정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데 재생원료가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18~2배 가량 비싸고 안정적으로 확보도 쉽지 않음
- 과거 산업용품, 건설용 제품에서 최근 식품용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도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규제가 강화되는 등 당분간 수요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임

(한겨레, 2022.08.07) 최우리 기자

### 3. EU, 화장품 원료관리 강화... 'CPNP' 등록 선택 아닌 필수

- EU가 화장품 원료관리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EU 국가에化妆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유럽 화장품 인증인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을 위한 RP(Responsible Person) 지정을 확인해야 함
- 이에 더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및 유해성분 여부 확인, 허용기준치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함
- 코트라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은 보고서를 통해, 신제품 준비 전 CPNP 등록 조건에 맞는지 따지고, 제품 만들면서 등록을 준비하라고 조언함

(팜뉴스, 2022.08.10.) 이권구 기자

## 1. 정부, 美 주도 FMC 참여 위한 첫발 댄다... 8월 중 업계와 간담회 진행

- 정부가 미국이 주도해 만든 녹색기술 거래 협력체인 FMC(First Movers Coalition, 퍼스트 무버 연합) 참여를 위한 첫발을 댔음
-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는 8월 중 FMC 참여를 위한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임
- FMC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8개 주요 분야 기업들이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운영 중임
- 이미 애플, 아마존, 보잉, 에어버스 등 세계적인 기업 상당수가 참여함 그동안 정부와 국내 기업들도 FMC 참여를 꾸준히 검토했음. 기업에선 한화, 현대차, 포스코 등 관련 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큼. 정부는 업계와 간담회 진행 후, 본격적으로 FMC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임

(이투데이, 2022.08.05.) 박준성 기자

## 2. 尹 정부 '풍력 확대' 첫 단추, 고정가격입찰로 풍력 시장 커진다

-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하는 고정가격입찰제가 풍력발전까지 확대될 예정임
- 한국에너지공단은 3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안 예고했고, 연내 첫 입찰이 시작될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REC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 전망이 가능해짐
- 풍력터빈업체인 유니슨, 두산에너지빌리티, 풍력타워업체인 씨에스윈드와 동국S&C,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업체 삼강엔티 등의 국내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 독일 지멘스가메사는 지난 6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덴마크 베스타스도 지난 3월 씨에스윈드와 국내 합작사를 만드는 등 해외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입과 합작사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머니투데이, 2022.08.07.) 최민경 기자

## 3. 에너지효율 투자기업 10% 稅혜택 검토...이상훈 에너지공단이사장

-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그동안 국내에선 제조업 중심 산업특성과 낮은 전기요금 탓에 에너지 수요효율화 관심이 너무 없었다고 지적함
-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34개국 중 31위이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22위임 정부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기계 장치에 대한 투자 시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용자 한도와 보조금의 보조율을 높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음
- 이미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가는 프랑스 등에서는 개문냉방, 심야 조명 광고 송출 등에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우리도 일상 속에서 전기를 아낄 수 있도록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타이 매지 않고, 반팔 셔츠 입기, 개문냉방 자제 등 캠페인도 벌임

(서울경제, 2022.08.08) 우영탁 기자

## 1. ‘친환경’으로 방향타 꺾는 해운사… 속도 낮추고 연료 바꾼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내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해 에너지 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를 도입함에 따라 전 세계 해운업계가 기존 선박을 개조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대체하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음
- EEXI는 2013년 이전에 건조된 400톤 이상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20% 감축하는 조치고, CII는 선박 1년의 1톤 화물, 1해리 운송의 탄소발생량을 집계해 A부터 E까지 5등급을 매기는 제도임 3년 연속 D등급 혹은 E등급을 한번이라도 받으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물류이용 기업들의 탄소감축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 아마존, 이케아, 유니레버, 미쉐린 등은 204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만 이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해운사들은 선박운항속도 낮추기, LNG나 수소,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선박 대체하기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선 엔진대신 거대한 날개를 장착한 화물선 ‘오션버드(Oceanbir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음

(국민일보, 2022.08.06) 김지애 기자

## 2. 전 세계 수요 폭발에… “리튬 공급난, 2030년까지 계속된다”

- 최근 골드만삭스 등은 리튬 추출 기술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2년 안에 리튬 공급이 대폭 늘어나고 결국 가격을 끌어내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의 공급난이 203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그러나 미국 최대의 리튬 생산업체 앨버말의 켄트 마스터스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안정적인 리튬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리튬 생산업체들의 시스템적인 문제들로 인해 공급난이 7~8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리튬 광산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리튬 확보 경쟁은 치열해지는 양상인데, 일례로 스텔란티스와 BMW 등이 올해 리튬 스타트업에 투자했음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주 리튬 생산업체 리벤트에 2억달러를 선불 결제하기로 했음

(한국경제, 2022.08.08.) 김리안 기자

## 3. 100대 기업 여성임원 5% 돌파 삼성전자 65명으로 가장 많아

- 헤드헌팅전문업체 유니코써치에 따르면, 100대기업 여성임원은 399명으로, 지난해보다 77명(239%) 늘었고, 100대기업은 지난해 322명으로 여성임원비율이 처음 5%를 넘어섰음
- 한 명이라도 둔 회사는 70곳에 달한 반면, 주로 조선 및 해운, 철강, 기계 등은 여성 인력과 여성 관리자 비중이 적었음
- 100대 기업 중 여성임원을 가장 많이 둔 기업은 삼성전자였고, CJ제일제당(30명), 네이버(23명), 현대차(18명), 롯데쇼핑(15명), 아모레퍼시픽(14명), 삼성SDS(13명), LG전자·KT·LG화학(각 10명) 등의 순이었음
- 사내이사로 이사회 멤버 활약하는 여성임원은 5명인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사 및 채선주 대외·ESG정책 대표, 김소영 CJ제일제당 사내이사, 임상민 대상 전무 등임

(디지털 타임즈, 2022.08.10.) 김대성 기자

### 1. 시멘트업계, 올해 환경분야 등 설비투자에 5400억 투입

- 국내 시멘트업계가 올해 추진 중인 설비투자 규모가 약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지난 2019년 대비 약 300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680억원을 크게 상회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과 폐플라스틱 처리 등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기조가 쌍용, 한일 등을 필두로 업계 전반에 확산하면서 투자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이코노믹 리뷰, 2022.08.08) 류소현 기자

### 2. 친환경이 낳은 산업계 ‘창조적 이중연합’

- 친환경 전환 바람이 이중업계간 협력을 확대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 한화그룹 화학 계열사인 한화임팩트는 최근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이 사업 제휴 협약을 맺어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함
- GS칼텍스와 네슬레코리아는 자원 효율화와 탄소저감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에 나섰고, 질소 생산과 관련해서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이 업무협약을 맺었음
- 탄소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SK에너지, SK에스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롯데케미칼, GS에너지 등 국내 6개사가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와 탄소 포집·저장·운송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해럴드경제, 2022.08.09.) 서경원 기자

### 3. 삼성전자, 미국에서 스마트폰 ‘셀프수리’ 지원… 국내 도입은

-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고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삼성전자는 이달 2일부터 미국에서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수리 부품과 설명서를 제공하기 시작했음
- 이에 따라 제품 사용자는 삼성전자 매장과 미국 수리 전문 업체 아이픽싯(iFixit)에서 부품을 구입해 설명서를 보고 직접 고장 난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됨
- 애플은 지난 4월부터 핵심 부품을 판매하고 수리용 도구를 대여하는 ‘셀프 서비스 리페어’를 시행하고 있고, 픽셀 시리즈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는 구글도 지난 6월 아이픽싯과 손잡고 북미·유럽 지역에서 순정 부품 판매를 시작했음
- 이처럼 애플·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스마트폰 ‘셀프 수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당장은 셀프 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선일보, 2022.08.10.) 이기우 기자

### 4. ‘배터리 강자’ LG에너지솔루션, ESG 환경 부문 1위

- ‘환경ESG’가 실시한 ‘2022 ESG 브랜드 조사’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환경 부문 1위(448점)를 차지했음 2위는 (주)LG가 차지했으며, SK에코플랜트가 3위, SK에너지가 4위를 차지했음
- 그룹사별로 LG계열사가 10개 중 절반 차지, SK그룹사는 4개사가 이름을 올렸으며, 삼성전자는 6위에 랭크됨
-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해 7개사의 ESG 등급을 하향 조정했음
- 환경경영(E) 부문에서는 에스오일(S-Oil)이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 사회책임경영(S) 부문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공사, 한라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으며,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지투알,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의 등급이 하락했음

(한국경제, 2022.08.10.) 이현주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8.5(금) ~ 2022.8.11(목)

제공일시 2022 08 1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러-우 전쟁 대비해 에너지 독립 정책 펼치는 미국과 유럽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에너지 제한조치가 이어지자, 전 세계 정부는 에너지 독립 정책을 펼치기 시작함
- 프랑스 정부는 재생 가능한 전력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신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차액계약(CFD)으로 구축력을 받기 전 18개월 동안 직접 시중에 전력을 판매할 수도 있고, 이미 경매에 낙찰된 사업은 완료 전에 최대 40%까지 용량을 늘릴 수도 있음
- 차액계약이란 구매자가 자산의 현재 가치와 계약 당시의 가치의 차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계약임. 만일 계약이 종료할 때의 가격이 최초의 가격보다 높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차액을 지불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차액을 지불함. 프랑스 정부는 또한 원자재 비용의 변화를 차등계약으로 반영할 계획임
- 프랑스 정부는 1만5000명 이상의 참가자들과의 공개 협의에 따라 계획된 올레롱(Oléron) 연안 풍력 발전의 규모를 2기가와트(GW)로 두 배 늘렸으며, 2050년까지 50개의 풍력 발전소에 40기가와트 (GW)의 해상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세인트 나제르(St. Nazaire)에 위치한 프랑스 최초의 상업용 해상 풍력발전소는 올해 6월부터 배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미 5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4배로 늘려 2만 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에는 신형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약 976만원)의 세금공제가 있지만, 전액 공제를 받으려면 2023년 전기차 제조사가 최소한 배터리 재료의 3분의 2를 미국에서 조달하거나 캐나다, 칠레, 호주 등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조달해야 함
- 법 시행을 앞두고 미 광산업체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할 것임. 가이드라인은 핵심 금속인 니켈과 리튬의 두 공급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는 제외하고, 미국내에서 조달하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2026년까지 배터리 재료의 소싱 목표를 80%까지 늘려야 함
- 2030년 말까지 미국 남동부에 리튬 가공 공장을 지을 계획인 세계 최고의 리튬 생산업체인 앨버말 (Albemarle Corp) 대변인은 "배터리 산업이 주로 아시아에서 운영되고 있고 미국내 공급망이 초기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건과 시간 일정이 쉽지 않다"고 말함. 세계적인 메이저 광산업체인 리오 틴토(Rio Tinto)는 미국 유타주와 캐나다에서 정제 및 제련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채굴과 가공에 대한 법안을 환영한다면 자동차 분야의 고객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 기후법안이 석유산업에 메탄수수료 일부를 면제해 기업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미 의회 조사국의 법안 분석에 따르면, 메탄수수료는 소수의 거대 석유회사와 독립 생산업체들의 배출량의 약 60%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기후법안의 검토와 협상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 맨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후법안은 수수료 부과 범위가 석유와 가스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의 절반에 못미치는 정도에 그쳤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임팩트는, 2022.08.13) 홍명표 기자

(임팩트는, 2022.08.10) 홍명표 기자

(임팩트는, 2022.08.10) 홍명표 기자

- 미 의회가 도입하려고 하는 메탄수수료(methane fee)는 매년 온실가스의 일종인 이산화탄소를 2만 50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에 적용됨. 메탄수수료는 이 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기업에게 2024년부터 톤당 900달러(117만원)를 부과하고, 2026년에는 톤당 1500달러(195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임
- 환경보호청(EPA)이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메탄가스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석유 및 가스 회사와 일정 기준치 이하로 가스를 판매하는 일부 파이프라인과 시설에도 수수료를 면제함. 미국의 석유·천연 가스 회사들에 유정·가스정, 저장탱크, 처리시설 등에서 메탄이 새는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신형 메탄 누출 감시 장비를 갖추도록 규제함. 이 외에도 업계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제거하기 위해 15억 달러(1조 9594억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도 제공함
- 톰 카퍼 상원의원은 "조 맨친 상원의원이 포집한 메탄가스를 처리할 적절한 장비가 없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메탄수수료가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웨스턴 환경법 센터(Western Environmental Law Center)의 전무이사인 에릭 쉐렌커 굿리치(Erik Schlenker-Goodrich)는 "소규모 배출자에 대한 메탄수수료의 면제가 문제"라고 밝힘